

목포시,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정비

1921년 건립...외벽 석재·미장 표면 오염 심각·균열 탈락 위험성 일제강점기 대표 수탈기관으로 역사성·시대성 인정 문화재 지정



목포시의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외벽이 건립된지 100년만에 처음으로 정비됐다. 목포시는 현재 근대역사관 2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남도 지방기념물 제174호)의 외벽보존처리 공사를 이달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921년 건립된 옛 동양척식지점은 외벽석재 및 미장 표면의 오염이 심각하고, 균열 진행에 따른 탈락 위험성 등이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정비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옛 동양척식지점 정면부에 불출통을 설치함으로써 원형을 재현할 방침이다.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인 옛 동양척식지점은 인근 6개 주재소를 관할했다.

옛 동양척식지점은 다른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들 중에서도 사리원지

점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옛 동양척식지점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대표적 수탈기관으로 역사성과 시대성이 있다는 점 ▲지금까지 지정된 문화재 가운데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 없다는 점 ▲남아 있는 부산지점의 건물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 ▲1921년 무렵의 공공시설물로는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 문화재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근대문화재인 옛 동양척식지점에 대한 외벽보존처리 공사를 통해 문화재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면서 "근대역사관 2관이 내부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전시환경 조성 및 전시시설 재연출로 근대역사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추포대교' 오는 29일 개통

암태도~추포도 잇는 국도 2호선 마무리...차량 통행시작

신안군은 암태도에서 추포도를 잇는 국도 2호선 추포대교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14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포대교는 연장 1.82km 해상 교량 사업으로,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354억원이 투입되었다.

300여년전 추포도 주민들의 육지를 향한 염원을 담아 노두길로 시작된 추포대교는 이제 비금도, 도초도로 향하는 비금-추포 연도교 건설사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통으로 그간 만조 시 통행이 어려웠던 추포도-암태도 구간을 언제든 지 건설 수 있게 되어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1004대교와 연계되어 서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개통에 앞서 암태주민을 축하하고 추포대교 건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9일 오전에 뜻깊은 개통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박우람 신안군수는 "추포대교 개통으로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에 비금-추포 연도교 건설사업이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국도교 통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실시

올해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농지 임대차 질서 확립

무안군이 올해 말까지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경작현황 등을 기록 관리한 농지행정자료인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2021년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원부 57,463필지와 2020년 전역물량

2,046필지를 포함한 총 59,509필지이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농지정보는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과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부 정비주체가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돼 정비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정비과정에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

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원부의 신뢰성 있는 정비를 위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더욱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농지 행정의 기초 자료인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여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코로나19 예방 '안심식당' 지정 확대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식사 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식당'을 2020년도 42개소 지정에 이어 올해에도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희망업소에 대해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생활방역 수칙과 3대 실천과제인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이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군에서 지정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영암군청 위생팀(☎470-2313)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조건에 적합 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안전한 e-모빌리티 엑스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제타뱅크와 인공지능 방역시스템 도입·행사장 방역 협력



영광군은 지난 24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역시스템 도입을 위해 김준성 영광군수, 최동완 (주)제타뱅크 대표이

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은 ▲인공지능 로봇·e-모빌리티 분야 인공지능 방역서비스 및 시스템을 위한 협력 ▲실무 협의체계 구축, 상호간 정보·인적 교류 ▲2021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방역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광군과 제타뱅크는 오는 10월 영광에서 개최되는 '2021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엑스포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산업박람회로 도약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준성 군수는 "2021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안전한 관람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발맞춘 빈틈 없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AI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최첨단 방역시스템을 도입하여 엑스포 행사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하라! 2021. 3. 24.(수)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함평군의회(의장 김형모)는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대표발의자 윤영랑 부의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로 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민들은 생계 위협마저 받고 있어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